

방탄소년단, K팝 그룹 역사 다시 쓰다

K팝 그룹 최초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분 수상

대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K팝 그룹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부문 상을 받았다.

현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가요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그룹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K팝 솔로가수로는 '강남스타일'로 국제적으로 발돋움한 싸이가 2013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스트리밍 송 비디오 부문을 거머쥔 바 있다.

이날 K팝 그룹 최초로 시상식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은 영화배우 로건 폴과 바이올리니스트 린지 스탈링이 수상자로 BTS'를 호명하자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상식 무대 위로 올라갔다.

방탄소년단은 "우리의 친구인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 정말 감사하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며 "이 상은 우리를 빛내주고 사랑해주는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의 것"이라고 영어로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한국어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더 멋진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이 수상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은 지난 1년간 앨범 및 디지털 노래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공연 및 소셜 참여 지수 등의 데이터와 이달 1일부터 진행된 글로벌 팬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아리아나 그란데, 션 멘데스 등 세계



방탄소년단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부문 상을 받았다.

적인 팝스타들과 경합했다. 2011년 처음 생긴 이후 6년 내내 비버가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를 시상식 무대에서 호명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3

번째로 많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소셜 네트워크에서 막강한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발매한 '화양연화 pt.2' 앨범을 시작으로 한국 가수 최초 4개 앨범 연속 '빌보드 200' 진입과 작

년 10월 정규 2집 '윙스(WINGS)'로 빌보드 200 26위라는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에 앞서 마젠타 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뉴시스

세리에A 유벤투스, 6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가 6년 연속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유벤투스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끝난 2016~2017 이탈리아 세리에A 37라운드 크로토네와의 홈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8승4무패(승점 88)를 기록한 유벤투스는 정규리그 1경기를 남겨놓고 2위 AS로마(승점 84)를 따돌리고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6년 연속 우승이자 통산 33번째 우승이다. 유벤투스는 2011~2012시즌을 시작으로 6시즌 연속 챔피언왕좌에 올랐다 이는 기존 인터밀란과 토리노가 가지고 있던 정규리그 최다 연속 우승(5회)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이날 유벤투스는 전반 12분 마리오 만주키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39분 파올로 디발라와 추가골 그리고 후반 38분 알렉스 산드로의 해기골을 더해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올해 코파 이탈리아컵 우승 정규리그 우승으로 더블을 달성한 유벤투스는 기세를 몰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는 6월 4일 영국 카디프의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결승전 단판 승부를 벌인다. 만약 유벤투스가 우승을 거머쥔다면 창단 첫 '트레블'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김민근기자

김종현, 뮌헨 월드컵사격 50m 소총복사 첫 금메달

'한국 소총 간판' 김종현(31)이 2017 국제사격연맹(ISSF) 뮌헨 월드컵사격대회 남자 50m 소총 복사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종현은 22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올림픽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m 소총 복사에서 합산 248.3점으로 시상대 맨 위에 섰다. 자신의 월드컵 대회 첫 입상이다. 김종현은 2위 보가르 스타인(노르웨이)보다 0.1점 앞섰다. 김종현은 2012 런던 올림픽 소총3자세 2위, 2016 리우 올림픽 소총복사 2위로 올림픽에서 연속 입상했지만, 유독 유독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이번 월드컵 첫 우승에 힘입어 2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대한민국은 이날 현재 대회 종합위로 올라섰다. 3위는 227.1점을 쓴 마티스 토마스(오스트리아)가 차지했다. 이날 628.8점을 쏘며 본선 1위로 결선에 진출한 김종현은 결선에서 보가르 스타인과 접전을 펼쳤다. 초종반 근소한 차이로 앞서던 김종현은 20발째에 보가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김종현은 24번째 마지막 한발을 남겨둔 상황에서 보가르에 0.6점 뒤졌다. 이후 마지막 발에 보가르가 먼저 10.0점을 쏘며 결선 합계 248.2점을 만들었고, 김종현은 10.7점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천민호(상무)는 11위(625.1점)에 올라 결선 진출에 실패했고, 남자 25m 속사권총에 출전한 송종호(한화갤러리아)도 결선에 진출했지만 초반 난조로 6위에 그쳤다.

/김민근 기자

U-20 월드컵, '승점 전쟁' 지금부터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를 넘은 신태웅호는 오늘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와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갖는다. 한국은 지난 20일 기니와의 개막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처음으로 마주한 대규모 관중을 의식한 듯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이내 흐름을 되찾으며 대승을 완성했다. 공격진의 핵심으로 꼽히는 FC바르셀로나 듀오인 이승우와 백승호가 첫 경기부터 골맛을 본 것 역시 이상적이었다. 물론 기니전 승리만으로는 16강 진출을 안산할 수 없다.

오늘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A조 2차전

24개국 출전한 이번 대회 16강 티켓은 6개조 상위 2개팀과 3위팀 중 성적이 좋은 4개팀에 돌아간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28일) 등 까다로운 상대들과의 일전을 앞둔 한국이 여유 있게 토너먼트 무대를 밟기 위해서는 남은 두 경기에서 1승 이상은 챙겨야 한다. 한국에 패한 기니가 3패로 추락할 경우 2승1패를 해도 조 3위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제물로 승리를 챙긴 뒤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잉글랜드를 상대하겠다는 계산이다.

3만7500명의 관중 앞에서 치른 기니전을 통해 제대로 흥을 끌어 올린 만큼 상대가 아르헨티나라도 크게 두렵지 않다는 반응이다. 아르헨티나 주포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라싱 클럽)가 잉글랜드전 퇴장으로 한국전에 뛸 수 없는 것 역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승우(FC바르셀로나)는 '아르헨티나는 개인기가 워낙 좋으니 잘 대비해야 한다. 좋은 팀이기에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2연승으로 16강에 오르면 (3차전에서는) 못 뛰었던 선수들이

뛸 수 있다. 나도 그렇고 선수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필승의 지를 다졌다.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상대보다 15개나 많은 22개의 슈트를 날리기도 0-3으로 패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전을 단단히 버리고 있다. 자칫 한국에도 달미를 잡히면 16강 진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모든 전력을 쏟아 부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아르헨티나 U-20 대표팀과 총 7차례 만나 3승3무1패로 우위를 잡았다. 2002년 8월 친선경기에서만 1-2로 패했을 뿐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